

관용과 중립

김성환*

주제분류 윤리학, 사회철학, 정치철학

주요어 관용, 중립, 롤즈, 다원주의, 인정, 참여

요약문

나는 롤즈의 관용과 중립의 양립 가능 테제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검토해 관용이 중립과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국가와 시민의 태도라고 논증한다. 2절은 관용과 중립의 양립 가능 테제에 대한 반론을 다룬다. 처칠은 관용과 중립이 양립 불가능하고 관용 대신 중립이 국가와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맥클드-가르시아는 관용이 어떤 견해나 행위를 억압할 일차 이유를 고수하면서도 일차 이유에 따른 억압을 이차 이유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고, 중립은 그 일차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절은 관용과 중립이 양립 가능하다는 재반론을 다룬다. 존스는 관용의 이유가 이차 이유가 아니라 일차 이유이고 중립이 관용의 일차 이유를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중립의 관점이 국가와 개인을 나누고 개인과 시민도 나눔으로써 영혼의 빈곤과 담론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4절은 관용 개념의 대안 또는 확장을 검토한다. 맥클드-가르시아는 수용을 관용의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갈레오티는 수용 개념을 비판하고 관용의 전통 개념을 인정으로서 관용으로 확장한다. 나는 갈레오티의 인정으로서 관용이 중립과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롤즈의 관용이 요구하는 참여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논증한다.

* 대전대학교

1. 롤즈의 관용과 중립의 양립 가능 테제

롤즈(J. Rawls)는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1993)에서 자유주의 국가가 중립(neutrality)을 훼손하지 않고도 관용(tolerance)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 이 주장은 “자유주의”, “중립”, “관용” 등 해명해야 할 개념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중립, 관용 뿐 아니라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이념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기에 너무 크다. 이 글의 주제는 관용과 중립으로 좁힌다.

롤즈에 따르면 중립은 목표(aim)의 중립이다.²⁾ 목표의 중립은 국가가 특정한 포괄 교설(comprehensive doctrine)을 선호하거나 장려하는 행위, 특정한 포괄 교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포괄 교설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위해 바람직하게 여기는 종교, 철학, 도덕 가치들의 집합이며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일 수밖에 없다.

포괄 교설은 부당한 것도 있지만 합당한 것(the reasonable)도 여럿이다. 합당한 것은 합리적인 것(the rational)과 다르다. 합리적인 것은 사람이 사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 능력이다. 합당한 것은 공적으로 남들도 평등한 인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고 토론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발적 도덕 감수성이다.³⁾ 목표의 중립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다수의 합당한 포괄 교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롤즈에 따르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포괄 교설이 다수라는 것은 불행한 재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롤즈는 이 “합당한 다원주의

1) 롤즈, 존 (2016), 323쪽.

2) 롤즈, 존 (2016), 320~322쪽.

3) 롤즈, 존 (2016), 140~144쪽.

사실(the fact of reasonable pluralism)”⁴⁾이 관용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다수의 포괄 교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교설을 참으로 여기고 남의 교설을 거짓으로 여기지만, 자신의 교설 뿐 아니라 남의 교설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교설 뿐 아니라 남의 교설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 국가 권력에 대해 특정한 포괄 교설을 편지지 않는 중립을 요구할 것이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포괄 교설이 참이라고 믿더라도 남의 합당한 포괄 교설에 대해 국가 권력을 포함한 모든 힘의 사용을 제한하는 관용에 합의할 것이다.⁵⁾ 롤즈에 따르면 관용은 중립과 양립할 수 있다.

나는 롤즈의 관용과 중립의 양립 가능 테제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을 검토해 관용이 중립과 양립 가능할 뿐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국가와 시민의 태도라고 논증한다. 2절은 관용과 중립의 양립 가능 테제에 대한 반론을 다룬다. 처칠(R. Churchill)은 관용과 중립이 양립 불가능하고 관용 대신 중립이 국가와 시민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맥클드-가르시아(S. Meckled-Garcia)는 관용이 어떤 견해나 행위를 억압할 일차 이유를 고수하면서도 일차 이유에 따른 억압을 이차 이유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고 중립은 그 일차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절은 관용과 중립이 양립 가능하다는 재반론을 다룬다. 존스(P. Jones)는 관용의 이유가 이차 이유가 아니라 일차 이유이고 중립이 관용의 일차 이유를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미스(S. Smith)는 중립의 관점이 국가와 개인을 나누고 개인과 시민도 나누으로써 영혼의 빈곤과 담론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4절은 관용 개념의 대안 또는 확장을 검토한다. 맥클드-가르시아는 수용(acceptance)을 관용의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갈레오티(A. Galeotti)는 수용 개념을 비판하고 관용의 전통 개념을 인정(recognition)으로서 관용으로 확장한다.

4) 롤즈, 존 (2016), 22쪽.

5) 롤즈, 존 (2016), 156~157쪽.

나는 갈레오티의 인정으로서 관용이 중립과 양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롤즈의 관용이 요구하는 참여(engagement)의 태도와도 일치한다고 논증한다.

2. 반론: 관용과 중립의 양립 불가능

1) 관용과 중립의 대립

처칠은 관용과 중립이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세 가지다. 6) 첫째, 관용은 도덕으로 칭찬할만한 개인 행위와 관련되지만 중립은 정부와 기관의 작용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다. 관용은 개인의 태도이고 중립은 국가의 태도다. 둘째, 관용은 중립 없이 있을 수 있고 중립도 관용 없이 있을 수 있다. 개인은 중립이 아닌 비자유 억압 정부 아래서도 남을 더 있게 관용할 수 있다. 또 중립은 관용이 없더라도 제도와 법으로 공공 기관과 공공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관용은 중립과 다르다. 중립은 국가가 어떤 포괄 교섭을 방어하거나 촉진하고 다른 포괄 교섭에 불이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용은 사람들이 어떤 포괄 교섭이 부도덕하다고 믿는 동시에 참는 것이 좋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관용이 개인과 관련되고 중립이 국가와 관련된다는 처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와 개인은 모두 관용과 중립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으로서 개인은 서로 다른 포괄 교섭들 사이에서 중립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또 국가와 개인은 모두 특정한 포괄 교섭에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기 위해 강압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관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에이브람스(K. Abrams)에 따르면

6) Churchill, R. (2003), 71~75쪽.

관용의 규범과 관련된 국가의 법이 있다. 예를 들어 1964년 미국 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여성의 차별을 불법화했고 1965년 미국 선거권법은 투표에 관한 차별을 금지했다.⁷⁾

둘째, 관용과 중립이 서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처칠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관용은 중립이 아닌 억압 정부보다 중립인 자유 정부 아래서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중립을 지키며 제도와 법으로 공공 기관과 공공 정책을 조절하더라도 자유 국가에서 일선의 공무원이나 법관은 관용을 공무와 법의 집행에 반영하는 재량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처칠의 마지막 근거는 국가가 관용을 포기하더라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논쟁할 만한 귀결을 낳는다. 처칠이 관용과 중립이 다르다고 보는 까닭은 관용이 포괄 교설에 의존하지만 중립은 포괄 교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롤즈에 따르면 중립은 국가의 공공 제도나 정책에서 목표의 중립이지만 처칠에 따르면 관용은 중립 목표를 가질 수 없다.⁸⁾ 관용은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율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포괄 교설이나 하나뿐인 참된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회의주의 포괄 교설 등에 의존해 강압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데 동의해야 성립할 수 있다. 관용은 포괄 교설들 사이에서 성립할 뿐 아니라 관용을 바람직한 가치로 여기는 포괄 교설도 전제해야 성립한다.⁹⁾

중립은 어떨까? 국가는 중립을 지키며 특정한 포괄 교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가 구현해야 할 가치가 있으므로 이 가치를 담은 특정한 포괄 교설을 지지한다고 보는 관점은 완전주의(perfectionism)¹⁰⁾라

7) Abrams, K. (2008), 200쪽.

8) Churchill, R. (2003), 72~73쪽.

9) 관용은 왜 해야 하는지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고 관용의 정당화는 철학의 역사에서 양심, 자연권, 정념, 회의주의, 분별력(prudence), 자율 등 정당화 근거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은 주제다. 관용을 정당화하는 데는 포괄 교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관용이 어떤 포괄 교설도 전제하지 않고 성립할 수는 없어 보인다.

불린다. 그렇다면 처칠이 롤즈를 비판하는 셋째 근거, 즉 관용이 중립 목표를 가질 수 없다는 근거는 롤즈의 관용이 완전주의 국가를 전제하니까 국가 중립의 가치를 위반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¹¹⁾ 국가가 관용을 바람직한 가치로 긍정하면 관용을 바람직한 가치로 보는 포괄 교설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주의의 난점은 서로 다른 포괄 교설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완전주의 이론들은 국가가 구현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국가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포괄 교설을 지지한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그러나 다원주의 사회에서 좋은 삶에 대한 합당한 포괄 교설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면 국가가 이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는 것은 다른 합당한 포괄 교설들 또는 이 교설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다수의 포괄 교설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특정한 포괄 교설을 지지하는 완전주의 국가의 대안은 국가의 중립이다.

10) 윤리학에서 완전주의는 좋은 삶을 뚜렷하게 규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이론을 가리킨다. 완전주의 도덕 이론은 특정한 속성이 인간의 본성을 이루고 좋은 삶은 이 속성을 최고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완전주의는 국가에 적용하면 국가가 좋은 삶을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완전주의 이론은 국가가 좋은 삶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Wall, S. (2012), 1쪽.

11) 롤즈의 관점이 완전주의와 다른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해석도 있다. 구성주의도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이 가치는 이성 행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해석에 따르면 롤즈의 관용과 정의 원칙은 공존과 협동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합의하는 가치들이다. McKinnon, C. (2003), 54~55쪽. 롤즈도 자신의 공정으로서 정의관을 구성주의라 부른다. 롤즈, 존 (2016), 209~215쪽. 그러나 롤즈는 정치 자유주의가 목적의 중립을 지키더라도 특정한 도덕 덕목들을 권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용은 시민 정신, 합당성, 공정감 등과 함께 이 덕목들에 속한다. 같은 책, 323쪽.

그러나 국가가 중립을 지키면 관용의 여지는 없다. 처칠에 따르면 관용은 특정한 포괄 교설이 부도덕하다고 믿는 동시에 참는 것이 좋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다수의 포괄 교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 부도덕하다고 믿는 동시에 참는 것이 좋다고 믿을 만한 포괄 교설도 없다.

관용과 중립을 모두 살릴 대안은 다시 국가가 중립을 지키고 관용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관용과 중립은 국가와 개인이 모두 가질 수 있는 태도다. 국가에 대한 완전주의의 난점을 극복하는 대안은 국가 중립주의지만 국가 중립주의는 공공 제도와 정책을 통한 국가의 관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관용이 중립 목표를 가질 수 없다는 처칠의 주장은 국가가 관용을 포기하더라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귀결을 낳는다. 처칠은 국가에 관용 대신 중립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중립주의자다. 관용 대신 중립이 국가에 필요하다는 처칠의 주장은 타당할까?

2) 관용의 이유는 이차 이유

처칠은 관용과 중립의 양립 불가능을 주장하지만 관용과 중립의 분명한 정의가 부족한 듯하다. 맥클드-가르시아는 관용과 중립의 정의에 기초해 둘의 양립 불가능을 주장한다. 맥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첫째, 관용과 중립은 서로 다르고 둘째, 관용 원칙과 중립 원칙은 서로 갈등한다.

맥클드-가르시아는 관용을 어떤 행위자가 어떤 견해나 행위를 억압할 일차 이유와 힘을 가지지만 억압하지 않을 이차 이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²⁾ 예를 들어 내가 친구와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가 사고당한 사람을 도우면 나는 일차 이유, 곧 영화 보러 갈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이차 이유, 곧 사고당한 사람을

12) Meckled-Garcia, S. (2003), 79쪽.

도울 이유가 있다. 관용이 성립하려면 내가 남의 견해를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 견해를 억압할 일차 이유가 있다고 믿는 동시에 그 이유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이차 이유도 있다고 믿어야 한다.

멕클드-가르시아는 중립을 어떤 행위자가 특정한 시민의 견해에 대한 선호를 동기로 가지지 않은 채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³⁾ 중립은 국가나 시민 등 행위자가 정책이나 법을 만들고 제안할 때 어떤 의도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관용의 관점에서 동성애자가 좋은 삶이라고 보는 견해를 돕기 위해 국가에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정책이나 법을 만들라고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의 관점에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선호를 동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관용과 중립은 서로 다르다.

나아가 멕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관용과 중립은 서로 갈등한다. 시민은 어떤 견해나 행위에 대해 관용의 태도와 중립의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관용은 시민이 어떤 견해나 행위를 억압할 일차 이유를 고수하는 것이고 중립은 그 일차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⁴⁾ 예를 들어 나는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자를 관용할 수 있다. 내가 동성애자를 관용한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차 이유를 포기하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동성애에 대해 중립의 태도를 가지려면 동성애를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든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든 일차 이유를 포기해야 한다. 시민이 관용하면 중립을 지킬 수 없고 중립을 지키면 관용할 수 없다. 멕클드-가르시아도 처칠과 마찬가지로 중립과 관용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13) Meckled-Garcia, S. (2003), 81쪽.

14) Meckled-Garcia, S. (2003), 87~88쪽.

3. 재반론: 관용과 중립의 양립 가능

1) 관용의 이유는 일차 이유

존스는 맥클드-가르시아를 반박하고 중립과 관용이 양립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첫째, 존스는 맥클드-가르시아의 논증에서 관용의 정의를 비판한다. 맥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관용은 어떤 견해나 행위를 억압할 일차 이유와 그 견해나 행위를 억압하지 않을 이차 이유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존스는 어떤 견해나 행위를 억압할 이유와 억압하지 않을 이유가 모두 서로 경쟁하는 일차 이유들이라고 반박한다.¹⁵⁾ 예를 들어 내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이유가 동성애를 죄로 보는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면 동성애자를 관용하는 이유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 신앙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존스에 따르면 중립은 관용의 일차 이유를 포기하지 않는다.¹⁶⁾ 예를 들어 내가 중립을 지키면서 동성애자를 억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동성애자를 억압할 일차 이유를 압도하는 이차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동성애가 그르다고 보는 일차 이유를 고수한 채 국가 권력이나 강압 힘을 사용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길 뿐이다. 나는 국가 권력이나 강압 힘의 사용에 대한 중립을 요구하면서 동성애자를 관용하지만 동성애가 그르다고 보는 일차 이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맥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내가 중립을 지킬 경우 남의 성 취향이 그르다고 생각할 일차 이유를 포기해야 하니까 남의 성 취향을 억압할 일차 이유도 사라지고 관용할 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존스에 따르면 중립과 관용은 같은 지평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관용이 먼저고 중립이 나

15) Jones, P. (2003), 100~102쪽.

16) Jones, P. (2003), 99~100쪽.

중이며 중립은 관용의 산물이다. 시민은 서로 다른 견해나 행동을 관용할 이유¹⁷⁾가 있기 때문에 그 견해나 행동과 관련해 중립인 국가의 정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존스에 따르면 관용과 중립은 배타적이지 않다.

벡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시민은 중립을 지킬 이유가 있지만 관용을 할 이유는 없다.¹⁸⁾ 그는 롤즈와 달리 개인이 시민으로서 정치 의사를 결정할 때 자신의 포괄 교설이 지닐 수도 있는 억압의 이유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억압의 이유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남의 포괄 교설에 대한 관용의 여지도 없다. 시민은 경쟁하는 포괄 교설들 사이에서 관용의 여지가 없는 중립을 표방할 것이다. 치질이 국가에 관용을 포기하더라도 중립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중립주의자라면, 벡클드-가르시아는 시민에게 관용이 필요 없고 중립만 필요하다고 본다는 뜻에서 중립주의자다. 중립주의자는 시민이든 국가든 관용 대신 중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존스에 따르면 개인은 중립을 지켜야 할 시민일 뿐 아니라 저마다 포괄 교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의 포괄 교설에도 불구하고 그 교설에 따른 억압 성향을 실행하지 않고 다른 교설을 관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참된 성 취향이라고 믿는 것 하나만 빼고 다른 모든 성 취향을 억압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 억압 성향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나를 설득하는 이유는 많다. 두 가지 이유만 보자.

(1) 내가 다른 성 취향을 억압하려 하면 갈등, 분쟁, 심지어 유혈 사태를 낳는 강한 저항을 만날 것이고 갈등, 분쟁, 유혈 사태는 그릇된 성 취향을 제거하기 위해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다.

17) Jones, P. (2003), 99쪽. 롤즈에 따르면 시민들이 관용해야 할 이유는 공정으로서 정의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을 사용해 어떤 합당한 포괄 교설을 억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롤즈, 존 (2016), 338~341쪽.

18) Meckled-Garcia, S. (2003), 90~91쪽.

(2) 나는 내 성 취향이 옳다고 믿지만 다른 성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자기 성 취향이 옳다고 믿는다. 무엇이 단 하나의 참된 성 취향인지에 관해서는 합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으므로 나는 내가 참된 성 취향이라고 믿는 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

나를 설득하는 이유가 (1)이든 (2)든 결론은 관용이다. 또 관용이 이기는 이유는 억압하려는 이유보다 크기 때문이다. 존스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관용하려는 이유는 내가 참된 성 취향을 강요하려는 이유를 없애지 않고 무효화하는(override) 일차 이유다.¹⁹⁾

존스는 롤즈의 정의론이 다양한 포괄 교설들에 제각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고 본다.²⁰⁾ 시민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포괄 교설이 지닐 수 있는 억압의 성향을 고려해 중립을 표방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포괄 교설을 고수하면서도 정치 권력의 사용을 제한하는 관용에 합의할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합당한 포괄 교설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원주의가 현대의 지속하는 특성인 한 관용도 지속하는 특성일 수밖에 없다.²¹⁾

2) 일원론과 이원론

맥클드-가르시아의 견해와 존스의 견해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차이는 관용의 이유에 대한 일원론과 이원론이다. 맥클드-가르시아는 동성애자를 관용하는 이유가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차 이유를 압도하는 이차 이유,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율 존중 원칙 때문이라고 본다. 맥클드-가르시아는 관용의 이유를 차원이 다른 일차 이유와 이차 이유로 설명하는 이원론자다. 존스는 동성애자를 관용하는 이유가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차 이유와 같은 차원에 있는 일차 이유, 예를 들어 이웃 사랑 원

19) Jones, P. (2003), 102~103쪽.

20) Jones, P. (2003), 104~105쪽.

21) 롤즈, 존 (2016), 125, 156~157쪽.

칙 때문이라고 본다. 존스는 관용의 이유를 서로 경쟁하는 일차 이유들로 설명하는 일원론자다.

관용의 이유가 억압의 이유와 같은 차원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같은 포괄 교설에서 도출되느냐는 것이다. 존스의 눈으로 보면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동성애자를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이라는 포괄 교설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맥클드-가르시아의 눈으로 보면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포괄 교설에서 나오고 동성애자를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율 존중 원칙을 중요한 가치로 포함하는 다른 포괄 교설에서 나올 수 있다.

일원론과 이원론 가운데 어느 쪽이 관용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더 타당할까? 포르스트(R. Forst)에 따르면 종교 믿음의 참과 관용의 규범은 별개의 것이고 관용과 관련된 이유들이 종교의 관점에서 그런 것을 관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²²⁾ 억압의 이유를 제공하는 종교 믿음과 관용의 이유를 제공하는 규범은 서로 다른 포괄 교설에 속하므로 포르스트는 이원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알렉산더(L. Alexander)에 따르면 우리는 대부분 현실에서 이원론자가 아니라 일원론자다. 일원론자는 어떤 일차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²³⁾ 내가 기독교 신앙이 옳다고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기독교 신앙이 옳다고 하는 이유만 받아들일 수 있다.

관용의 이유와 관련해 맥클드-가르시아와 포르스트는 이원론자이고 존스와 알렉산더는 일원론자다. 이원론자는 중립과 관용의 양립 불가능을 주장하고 일원론자는 양립 가능을 주장한다. 관용의 이유에 관해 일원론과 이원론은 원칙 뿐 아니라 현실 면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한다. 현실에서 보통 사람이 일원론자라는 알렉산더의 견해는 보통 사람이 이원론자

22) Forst, R. (2008), 281쪽.

23) Alexander, L. (2008), 308쪽.

라는 포르스트의 견해보다 직관으로는 옳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통 사람이 대부분 일원론자인지 아니면 이원론자인지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사람이 때로는 일원론자, 때로는 이원론자일 수도 있다. 롤즈는 관용과 중립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시민이 각자 포괄 교설을 가진 채 관용과 중립의 원칙을 포함하는 정의관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시민을 이원론자로 본다. 그러나 시민의 합의에 대한 롤즈의 기대가 “돈키호테 같은(quixotic)”²⁴⁾ 헛된 꿈이라는 반론도 있다. 관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3) 영혼의 빈곤과 담론의 빈곤

스미스(S. Smith)는 중립의 관점이 국가와 개인을 나누고 개인과 시민도 나눔으로써 영혼의 빈곤과 담론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²⁵⁾ 중립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어떤 포괄 교설을 수용하고 다른 포괄 교설을 거부하지만 국가는 다수의 포괄 교설 사이에서 중립의 태도를 취하거나 어느 교설이 참인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중립의 관점은 한 포괄 교설을 지지하는 개인과 한 포괄 교설을 지지할 수 없는 국가를 나눈다.

또 중립의 관점에서 시민은 한 포괄 교설에 근거해 행동하는 것을 삼가야 하지만 개인은 한 포괄 교설에 근거해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으로서 나는 이슬람교 신앙에 근거해 학교나 공공 장소에서 머리스카프를 쓰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나는 만일 중립을 이유로 공공 장소에서 특정한 종교 신앙의 표현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다면 머리스카프를 쓰고 다닐 수 없다. 중립의 관점은 개인과 시민도 나눈다.

24) Newey, G. (2008), 378쪽.

25) Smith, S. (2008), 259~270쪽.

중립의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 개인과 시민이 나누어지면 영혼의 빈곤이 생긴다. 시민으로서 나는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개인으로서 내가 믿는 이슬람교 신앙을 떼뻗이 밝힐 수 없다. 시민으로서 나는 나의 확신과 진짜 동기를 숨기는 법을 배울 것이고 남들도 마찬가지로 은폐 기술을 습득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은 제각기 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기만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시민으로서 나는 이슬람교 신앙이든 기독교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거짓된 종교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참된 종교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에 빠진다. 믿음을 떼뻗이 밝힐 수 없는 영혼이나 불가지론에 빠진 영혼은 빈곤하다.

담론의 빈곤은 중립의 관점이 글로벌 문화 갈등을 해결하는 담론으로서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 세계는 확신의 부재가 아니라 확신의 과잉이 문제다. 예를 들어 대체로 경험과 과학을 중시하는 진보 문화와 경전과 초월 권위를 인정하는 전통 문화의 대립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중립의 관점은 인권, 대의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진보 문화를 그렇지 않은 공동체들 속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봉쇄한다. 중립의 관점은 문화 갈등을 방치하고 문화 갈등을 치유하는 데 무능하다.

스미스에 따르면 중립의 대안은 관용이다.²⁶⁾ 영혼의 빈곤을 치유하려면 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떼뻗이 밝히면서도 다른 믿음을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담론의 빈곤을 치유하려면 합당한 포괄 교설들에 기초한 문화들이 서로 관용하는 가운데 합당한 포괄 교설들을 억압하는 공동체들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정한 포괄 교설이 참이라는 믿음은 중립이 아니라 관용과 양립할 수 있다. 맥클드-가르시아가 시민에게 관용이 필요 없고 중립만 필요하다고 보는 중립주의자라면 스미스는 관용이 중립의 대안이라고 보는 관용주의자다.

26) Smith, S. (2008), 269~270쪽.

4. 관용, 수용, 인정

1) 관용 대신 수용

중립이 영혼의 빈곤과 담론의 빈곤을 초래하고 관용이 이런 빈곤을 해소한다고 해서 관용주의와 중립주의의 대결이 관용주의의 승리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관용주의와 중립주의는 논리 뿐 아니라 역사 사실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도 날카롭게 대립한다. 종교 개혁 이후 많은 개신교 종파들이 분열하고 끊임없는 종교 박해와 종교 전쟁이 일어나자 몽테뉴, 홉스, 데카르트, 로크,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벨 등 많은 사상가들은 이 구동성으로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의 관용을 외쳤다. 나아가 사상가들은 관용의 정의, 정당화,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쏟아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종교 관용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지 않기 위해 서로 내버려두는 타협(modus vivendi)의 성격이 짙었다. 실제로 많은 개신교 분파는 다른 종교 분파에 대한 탄압을 국가에 요구했다. 그렇다면 종교 개혁 이후 종교 관용은 서로 다른 종교 분파들 사이에서 국가가 한 쪽 편을 들지 않은 중립의 산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²⁷⁾

서양 근대 역사에서 종교 관용이 중립의 산물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더 깊이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관용의 역사는 종교 관용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일상으로 확장된 관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를 던진다. 역사에서 종교 관용은 다수파와 소수파라는 힘의 비대칭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유대교나 퀘이커교는 소수파 종교로서 다수파 종교의 관

27) 맥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몇 가지 프로그램은 국가의 기능에서 종교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옹호했으므로 중립주의 동기에서 비롯했다. 또 국가에서 도덕 개념을 제거하는 것도 중립주의가 동기였다. 그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을 관용이라 부르는 것은 문제를 애매하게 만든다. Meckled-Garcia, S. (2003), 86 쪽.

용을 받았다. 과연 유대교도나 퀘이커교도가 이런 관용을 고맙게 받아들였을까?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인을 관용하고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관용하면 이슬람교인과 동성애자가 고마워할까? 이슬람교인은 이슬람교가 그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는 동성애가 그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교인과 동성애자는 관용을 넘어 이슬람교와 동성애가 그르지 않다고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관용은 불충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립주의자 맥클드-가르시아가 시민이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관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도 관용 받는 사람에게 관용은 불만스럽다는 점이다. 맥클드-가르시아가 관용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수용”이다. 수용은 다음과 같은 태도다. “나는 너와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강압의 충분한 이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인다.” 수용은 예를 들어 내가 동성애를 도덕으로 꾸짖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자에게 강압의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맥클드-가르시아는 수용이 상호 지지(endorsement)라는 뜻에서 완전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내가 동성애자를 수용하더라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동성애자를 완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맥클드-가르시아에 따르면 수용과 완전 수용 사이의 경계선이 자유주의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다.²⁸⁾

그러나 갈레오티는 동성애를 꾸짖지만 동성애자를 관용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논리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죄는 꾸짖되 죄인은 보듬어 안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논리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유대교 율법 탈무드의 가르침과 같다. 갈레오티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의 태도는 관용이 아니다. 동성애를 꾸짖지만 동성애자를 관용하는 것은 사람을 관용하지만 성 취향이나 행동은 관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용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아이디어, 가치, 취향, 습

28) Meckled-Garcia, S. (2003), 90~95쪽.

관, 행동, 라이프스타일은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갈레오티에 따르면 관용 또는 수용의 적절한 대상은 차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차이이다.²⁹⁾

벡클드-가르시아의 수용은 비개입이다. 내가 수용의 태도를 가지면 동성애를 그르다고 생각하더라도 동성애자에게 개입해 성 취향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는 관용 못지않게 수용도 못마땅해 할 수 있다. 수용도 관용과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그르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관용 또는 수용의 대안이 필요하다.

2) 인정으로서 관용

갈레오티의 대안은 인정으로서 관용이다. 그는 관용의 전통 개념을 “자유주의(liberal) 관용”이라 부르고 인정으로서 관용으로 확장하려 한다. 자유주의 관용은 언제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고 사적 영역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관용 문제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인이 머리스카프를 쓰는 문제나 동성애자들이 입대하는 문제는 공립 학교나 군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자유라는 자유주의 관용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갈레오티는 공적 영역에서 관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정으로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으로서 관용의 핵심 내용은 공적 영역에서 소수파의 정체와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다.³⁰⁾ 이슬람교인이 프랑스 학교에서 머리스카프를 쓰게 허용하고 동성애자가 군에 입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소수파를 공적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29) Galeotti, A. (2003), 48-49쪽.

30) Galeotti, A. (2008), 111~112쪽.

갈레오티에 따르면 인정으로서 관용은 정의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중립과 양립할 수 있다.³¹⁾ 첫째, 인정으로서 관용은 문화 지배 상황에서 출발한다. 문화 지배 상황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러 집단과 문화가 사회 지위, 공적 존중, 정치 권력 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정체와 행동을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소수파의 다른 정체와 행동을 배제하는 것은 소수파의 성원을 다수파의 성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니까 공정으로서 정의를 위반한다. 배제되고 억압받는 정체와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라면 차이의 공적 인정으로서 관용은 정의의 이름으로 국가 제도와 정부 정책에 담겨야 한다.

둘째, 중립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 아니고 차이에 상대적이다. 중립은 새로 나타나는 차이를 고려해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오늘 차이는 동성애지만 내일 차이는 무엇일지 모른다. 그리고 차이를 배제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차별이니까 중립은 새로 나타나는 차이를 계속 포섭해야 한다. 배제되는 차이를 포섭하는 중립이 곧 인정이다. 중립은 모든 시민이 사적 영역에서든 공적 영역에서든 자신의 특수한 정체와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법 제도가 시행된 1993년부터 클린턴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다.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않으면 동성애자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군에 입대하고 복무할 수 있다. 갈레오티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의 이 정책은 자유주의 관용의 전형이다. 이 정책은 동성애자의 사적 영역에 관한 질문과 대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³²⁾

그러나 갈레오티는 자유주의 관용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에

31) Galeotti, A. (2008), 115~120쪽.

32) Galeotti, A. (2008), 121~122쪽.

서 비가시성(invisibility)을 공적 영역에서 그대로 놓아둔다고 비판한다. 동성애자의 정체는 군에서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공적 비가시성이 자유주의 관용의 약점이다. 갈레오티에 따르면 인정으로서 관용은 공적 비가시성을 공적 가시성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³³⁾ 인정으로서 관용이 실현되면 동성애자는 성 정체를 떳떳이 밝히며 군에 입대하고 복무할 수 있다. 또 인정으로서 관용은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 포섭하는 중립도 실천할 수 있다. 국가가 성 정체에 관한 특정한 견해를 편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동성애자 군 복무 금지법은 2011년에 폐지되었다.

3) 롤즈의 참여

롤즈는 사회 구성원들이 관용, 중립을 포함하는 정의 원칙들을 채택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을 “합당한 포괄 교설들 사이의 중첩 합의(overlapping consensus)”³⁴⁾라 부른다. 롤즈에 따르면 중첩 합의의 대상은 서로 다른 교설들에서 끌어 모은 원칙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포괄 교설들 속에 없는 제3의 정의 원칙들이다. 서로 다른 포괄 교설을 가진 사람들은 제3의 정의 원칙들에 합의하고 각자의 포괄 교설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찾아 이 정의 원칙들을 정당화한다. 이 두 단계의 합의와 정당화 과정이 중첩 합의다.

롤즈에 따르면 중첩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공적 이성(public reason)이 필요하다. 공적 이성은 집단체로서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이다.³⁵⁾ 롤즈에 따르면 평등한 시민들은 남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33) Galeotti, A. (2008), 122~125쪽.

34) 롤즈, 존 (2016), 247쪽.

35) 롤즈, 존 (2016), 347쪽. 롤즈는 공적 이성을 “헌법의 본질과 기본 정의의 문제들에 관한 공공 토론에서 시민의 이성적 사고”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같은 책, 91쪽.

정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기꺼이 준수할 태도를 가진다는 뜻에서 합당한 사람들이다.³⁶⁾

맥किन(C. McKinnon)은 롤즈의 공적 이성이 참여의 태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참여는 자기가 싫어하고 승인하지 않는 행동, 믿음 등에 대해 대화하거나 반대 입장을 상상함으로써 이해하려는 시도다. 합당한 시민들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서로 제안하고 공적 이성으로 합의한다. 어떤 시민이 자기의 포괄 교설 속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 제안을 하려면 남들의 정치 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 교설도 이해하려고 시도해야 한다.³⁷⁾

롤즈에 따르면 합당한 포괄 교설들 사이의 중첩 합의는 합당한 시민들이 자기의 포괄 교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합당한 시민들은 자기의 포괄 교설을 유지한 채 정의 원칙들을 합의한다. 그러나 합당한 시민들이 합의한 정의 원칙은 각자의 포괄 교설 속에서 정당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당한 시민들이 어떤 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공적 이성으로 합의하려면 남들이 그 정의 원칙을 정당화해야 하는 합당한 포괄 교설을 고려하고 이해해야 한다. 합당한 시민들이 공적 이성을 통해 정의 원칙들에 중첩 합의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태도가 필요하다. 비이슬람교인이 프랑스 학교에서 이슬람교인이 머리스카프를 쓰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려면 이슬람교인의 포괄 교설을 이해해야 한다. 비동성애자가 군에 동성애자가 입대하고 복무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려면 동성애자의 포괄 교설을 이해해야 한다.

헤이드(D. Heyd)에 따르면 관용은 판단 전이(shift)가 필요하다.³⁸⁾ 관용은 어떤 견해나 행동이 틀렸다는 판단에서 그럼에도 그 견해나 행동을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용이 판단 전이라

36) 롤즈, 존 (2016), 141쪽.

37) McKinnon, C. (2003), 58~59, 61~64쪽.

38) Heyd, D. (2008), 185~186쪽.

면 무관심(indifference), 묵인(acquiescence) 등 수동적 태도와 달리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 적극적 태도다. 참여도 남의 포괄 교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태도다.³⁹⁾ 이슬람교인이 학교와 공공 장소에서 머리스카프를 쓰게 허용하고 동성애자가 군에 입대하게 허용하는 것이 무관심이나 묵과가 아니라 인정으로서 관용이라면 이슬람교나 동성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롤즈의 관용 원칙은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 합의가 필요하고 공적 이성에 의한 중첩 합의는 남의 포괄 교설을 이해하려는 참여의 태도를 요구한다. 참여는 인정으로서 관용의 다른 이름이다.

39) 맥키넨에 따르면 참여는 자기가 싫어하고 승인하지 않는 행동, 믿음 등에 대해 대화하거나 반대 입장을 상상함으로써 이해하려는 시도다. McKinnon, C. (2003), 58~59, 61~64쪽.

참고문헌

- 롤즈, 존 (2016),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 Abrams, K. (2008), “Forbearant and Engaged Toleration: A Comment on David Heyd”, in M. Williams and J. Waldron (eds.), *Toleration and Its Limi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5~219.
- Alexander, L. (2008), “Is There Logical Space on the Moral Map for Toleration? A Brief Comment on Smith, Morgan, and Forst”, in M. Williams and J. Waldron (eds.), *Toleration and Its Limi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300~312.
- Churchill, R. (2003) “Neutrality and the Virtue of Toleration”, in D. Castiglione and C. McKinnon (eds.), *Toleration, Neutrality and Democracy*,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65~76.
- Forst, R. (2008), “Toleration and Truth: Comments on Steven D. Smith”, in M. Williams and J. Waldron (eds.), *Toleration and Its Limi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81~292.
- Galeotti, A. (2003), “Do We Need Toleration As A Moral Virtue?” in D. Castiglione and C. McKinnon (eds.), *Toleration, Neutrality and Democracy*,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47~62.
- Galeotti, A. (2008), “Toleration as Recognition: The Case for Same-Sex Marriage,” in I. Creppell, R. Hardin, and S. Macedo (eds.), *Toleration on Trial*, Lanham: Lexington Books, 111~133.
- Heyd, D. (2008), “Is Toleration a Political Virtue?” in M. Williams and J. Waldron (eds.), *Toleration and Its Limi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71~194.
- Jones, P. (2003), “Toleration and Neutrality: Compatible Ideals?” in D. Castiglione and C. McKinnon (eds.), *Toleration, Neutrality and*

- Democracy*,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97~110.
- McKinnon, C. (2003), "Toleration and the Character of Pluralism," in C. McKinnon and D. Castiglione (eds.), *The Culture of Toleration in Diverse Societies: Reasonable Tolera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54~70.
- Meckled-Garcia, S. (2003) "Toleration and Neutrality: Incompatible Ideals?" in D. Castiglione and C. McKinnon (eds.), *Toleration, Neutrality and Democracy*,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77~95.
- Newey, G. (2008), "Toleration, Politics, and the Role of Murality," in M. Williams and J. Waldron (eds.), *Toleration and Its Limi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360~391.
- Smith, S. (2008), "Toleration and Liberal Commitments" in M. Williams and J. Waldron (eds.), *Toleration and Its Limit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43~280.
- Wall, S. (2012), "Perfectionism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oleration and Neutrality

Kim, Seonghwan (Daejin Univ.)

In this paper, I examine some objections and replies to Rawls' thesis on the compatibility of toleration and neutrality and argue that they are compatible and are needed as a desirable attitude of both states and citizens in pluralistic societies. In section 2, I analyse some objections to Rawls' thesis. Churchill states that toleration and neutrality cannot be compatible and neutrality instead of toleration is needed to states and citizens. Meckled-Garcia argues that toleration and neutrality are incompatible, because toleration is that the relevant agent has a first order reason to repress a view or a practise and acts on a second order reason not to repress it, while neutrality, by contrast, is to forgive the first order reason to repress it. In section 3, I analyse some replies to those objections. Jones argues that the reason for toleration is not second order reason but first order one and neutrality dose not forgive the first order reason for toleration. Smith states that neutrality brings about the impoverishment of the soul and the discourse by separating persons not only from states but also from citizens. In section 4, I analyse an alternative and a extensions of the concept of toleration. Meckled-Garcia proposes a concept of acceptance as an alternative of the concept of toleration. But, Galleotti criticizes the concept of acceptance and proposes the concept of toleration as recognition as a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it. I argue that toleration as recognition is compatible with neutrality and have a similar meaning with an attitude of engagement which Rawls' toleration calls for.

Key words: Toleration, Neutrality, Rawls, Pluralism, Recognition, Engagement

김성환 E-mail: shkim@daejin.ac.kr

투 고 일	2016년 10월 02일
심 사 일	2016년 10월 26일
게재확정	2016년 11월 11일